東大新聞

發行人 趙明基
編輯人 鄭璡
主幹 孫道展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⑧3130—9
本社直通 ⑧8498

選管委構成 委員長에 洪分杓君 學生會長、代議員選出 도

大學이 正常化되자 6월부터 미루어온 學生會長選擧가 드디어 오는15일 實施된다。學校당국에서 선거일을15일로 확정, 2학기들어서음소 집된 代議員總會는選擧管理委員會를 구성하고選擧事務를 위임하였다。이로써 까지모든 學生會幹部선거를 치러야 될것으로 내다보인다。

4인상으11시 소극장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會議定數未達로 미뤄 상정되었던 總學生會則 改正案은 심의하지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만을 구성하고 산회하였다。

이날회의에는 尹錫斗議長의 인사에이어 新任鄭총學生處長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鄭處長은 『學園에서의 公明選擧가 되도록 代議員들이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하고 과거를 잊고 未來를 생각하며 다같이매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洪分杓(行4) 運營分科委員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13명의 選擧管理委員會를 구성하였는데 委員은 代議員중에서 各單科大學과 2部大에서 각각2명씩과女學生會1명을 선출하였다。

이날 選擧管理委員長에 選된 洪分杓운은 『大學社會의 모범선거를 지향하여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5일부터 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事務를 집행하게되면 지금까지 옹성적으로벌려오던 大學內의 선거운동이 양성화할것같다。

따라서 각학년 代議員을 비롯하여 學會長, 單科大學會長 그리고 總學生會 正副會長등 각급잔부선거가실시되는 9월의 「캠퍼스」는 한동안 選擧분위기로 가열될 것같다。

4명의 새碩士가 탄생하였다。趙總長은 致辭에서 들석사들에게 學問의硏究에 더욱 발분할것을 당부하였고 석사학위를받은 梁海卿씨는 『오늘의영광이 있기까지 배울을주신 교수들께 감사하다』고 답사하여 母校들위해 몸바치겠다는결의를보였다。이날 학위수여자중에는 政治學碩士학위를받은 秦國人도 끼여있어이채를띄었다。

이날 碩士學位를받은 사람과 論文題目은 다음과같다。

▲梁海卿(政治學) ‖ 韓國安全保障에 관한硏究 ▲산야 곱타룹야(政治學) ‖ 韓國經濟에있어서 유엔의역할 ▲朴榮吉(法學) ‖ 어음手票에있어서의 權利瑕疵에관한硏究 ▲趙思鎬(農學) ‖ 大麥種子에 미치는 각만레이영향과 이에대한 生長物質과의 상호작용에관한硏究

全國體典豫選 축구등出戰

第43回 全國體育大會 서울특별시예선대회가 오는5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되는데 本校에선 축구, 레슬링, 럭비등 3종목에 出戰한다。

放學을 이용하여 「하트트레이닝」을하여 온 各運動部는 그동안 닦아온 實力을 발휘하게될것인데 축구부는 決勝에서 25일간 馬韓石밭과의 親善게임에서 1대0으로 가볍게 이긴바있다。

洪禧杓君詩壇데뷔

「現代文學」추천완료

〈아침의 노래〉로 추천을 마치고 문단에데뷔하였다。洪군은 詩人 申石艸씨의 지도로 꾸준히 詩業을 쌓아왔는데 〈내 살결에〉〈봄바람에게〉에 이어 이번에 〈아침의 노래〉로 추천을 완료케되었다。

申시인은 推薦辭에서 『아침의 약동하는 이미지를內心의 추이에 따라 선명하게 부각시켜 놓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데뷔한 洪군은 內面의 「레아리떼」를살려 공허한 젊음의 우수를 그리고싶다고。

土曜法會

▲演題‖보조국사 法語
▲講師‖吞虛大禪師
▲日時‖9日 午後3時
▲場所‖大學禪院

今週一言

信仰은 모든 知識의 처음이 아니라 끝이다。

<괴테>

第一學期…開講

登錄8日까지

受講申請 13~16日

本校는 지난21일 開學과함께 2학기등록, 1학기말 시험을 조용히 끝내고 4일부터 2학기開講에 들어갔다。그런데 2학기등록을 아직 못마친 학생은 오는 8일까지 꼭 필해야하며수강신청은 등록여부를 가리지 않고 오는13일부터 16일 까지 반드시 해야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수강신청을 못하게 된다。

한글대장경 第14輯出刊

東國譯經院에서 지난 15일 「한글대장경」 第14輯을내놓았다。14輯은 「한글대장경47」으로서 8월1일과 9월1일 양차에걸쳐 간행부하의 主任敎授를 更迭하였다。

이번에 주임교수가 바뀐 학과는 經濟學科등 비롯하여 史學科·哲學科·數學科·化學科등 5개학과인데다른학과의 주임교수는 계속留任할 것이나 앞으로 한두학과의 主任敎授는 바뀔것으로 豫想된다。

새로 임명된 주임교수는 다음과같다。

▲哲學科‖尹明老교수▲經濟學科‖吳德永교수▲史學科‖安啓晋교수▲數學科‖盧滅詰助敎授 ▲化學科‖閔泰원敎授。

主任敎授更迭

史學科등5個科

學校當局은 새학기를맞아 8월1일과 9월1일 양차에걸쳐 주임교수가 바뀐 學科들의 主任敎授를 更迭하였다。

<碩士學位수여광경>

碩士4名誕生

大學院學位授與式盛了

大學院 後期學位授與式이 7월2일하오1시 東華大學院長및 學院長이참석한가운데 거행되었다。

趙明基총장은 致辭에서 67年度 碩士學位를받은 4명의 碩士들에게 學問의硏究에 더욱 발분할것을 당부하였고 석사학위를받은 梁海卿씨는 『오늘의영광이 있기까지 배울을주신 교수들께 감사하다』고 답사하여 母校들위해 몸바치겠다는결의를보였다。이날 학위수여자중에는 政治學碩士학위를받은 秦國人도 끼여있어이채를띄었다。

이날 碩士學位를받은 사람과 論文題目은 다음과같다。

▲梁海卿(政治學) ‖ 韓國安全保障에 관한硏究 ▲산야 곱타룹야(政治學) ‖ 韓國經濟에있어서 유엔의역할 ▲朴榮吉(法學) ‖ 어음手票에있어서의 權利瑕疵에관한硏究 ▲趙思鎬(農學) ‖ 大麥種子에 미치는 각만레이영향과 이에대한 生長物質과의 상호작용에관한硏究

學生處長에 鄭瑜敎授

敎務·學生兩處로分離

지난5月末 單大學長中心으로 敎學事務를 分敎하고 敎務處와 學生處를 統合, 그동안 李東林敎學處長이 學務를 관장해 왔었는데 敎學事務가 複雜化됨에 따라 다시 學生處와 敎務處를分離하고 學生處長에 鄭총교수가 취임하게된 것이다。

新任 鄭學生處長의略歷은 다음과같다。

▲全南靈光出身(52歲)▲中央佛敎卒 ▲日本東洋大文學部哲學科卒 ▲光州醫大豫科部長 ▲全南大文理大敎授 ▲東國大敎授。

鄭瑜世교수渡日

東京에서 열리고있는 유니버시아드大會에 참석하기 위해 敎養學部 鄭유世교수가 지난7월26일渡日했다。

洪分杓君

「現代文學」誌(9月호)에 詩 「페터」 급의 석사과정, 「라이어」급의 석사과정, 「라이트」급의 張鎬成(林·3)등과함하여 全種目에걸쳐선발된셈이다。

이러한成果는 全國에散在해있는 道場팀과 學校팀에서는 도저히찾아볼수없는記錄이다。

이들은 오는24일에있을 最終선발시합에서 優勝을하면 韓國代表選手로서 印度大會에 參加하게된다。

大學人事

▲尹一柱 任助敎授 金鹿業大福祭工學科敎務 任專任講師 命
▲元鍾範 任專任講師 命
佛敎大 印度哲學科敎務 任專學科敎務 命
▲崔德熙 任專學科敎務 命
文理大數學科敎務 任專任講師 命
▲鄭址鎬 任專任講師 命
文理大數學科敎務 任專任講師 命
▲李泰根 任專任講師 命
▲金昌浩 任專學科敎務 命
▲趙旺碁 任專學科敎務 命
經商大學敎務 任專任講師 命
▲金昌浩 任專學科敎務 命
(以上九月末日付)

反射鏡

가을은 「데이트」가 바빠지는계절이다。옛날의 化粧法은 살결을 가리는 塗飾法時代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살결을 드러내는裝身法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주」는 상징일지 몰라도 「분」은 없다。

「분」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리니스커트」가 유행하는 것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리니스커트」의 본질은 「미니」에서 「맥시」로 변천되어 다시 「미니」로 되돌아온 것이다。

▲아무리 「미니」가 아니라 「맥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리니스커트」가 아니면 「맥시」이다。

▲「리니스커트」가 「맥시」가 아니라 「미니

學界의 眞의 問題點

<1>

學問의 世界는 부단히 전진을 한다. 反抗, 不信, 慾求不滿 등이 뒤질서하게 소용돌이 칠때, 學者들은 혼돈에서 질서를 찾기위해 苦念하는 것이다. 이제 가을이 온다. 오늘의 學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問題點은 무엇인가. 이번週부터 學問전반에 걸친 연재한다. <編輯者>

禪學

<大學院長·禪學> □金東華□

學問으로서의 禪學은 황무지

坐禪은 自己를 밝히는것

科學的理論體系세워야

<1>

불교에서 敎宗 禪宗이라 하여 全불교의 半分을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있다. 이때 禪宗으로서는 自宗의 특징을 外別傳이라한다. 敎宗이란 간단히 말해서 학문적불교라는 의미임에 비하여 禪宗은 文字 즉 學問的인 敎說에 의하지 않고 學問外에 別傳하는 것으로써 그宗旨로 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宗風의 別은 敎主釋迦牟尼佛로부터 그二大제자에 各傳하였다고한다. 즉 敎宗은 多聞第一의 阿難尊者에게 傳해졌고 선종은 頭陀제일의 迦葉尊者에게 전해져서 兩계통이 脈脈相傳하여 오늘날에 이르고있다고한다. 이러한 傳說에의하여 선종은 文字 학문을 經視하는 宗風이 농후하다. 만약 선종의 경향으로써 본다면 선종을 학문적으로 다른다는것은 선종의 면목에 맞지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불교학상 옛날에는 선학이라는 語句가 使用된일이 없었다.

선학이라면 理論을 所有한것으로서 그것은 즉 학문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敎宗과의 구별이 없어진다. 그러니 만약 이와같은 전통적전지에서 본다면 禪學이란성립될수없는것이다. 선학이 成立될수없을뿐아니라 옛날의 禪宗正통적 전지에서는 선을 학문의 일종으로 다룬다는태도는 용서받을수없는 外道的소행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완고한 선종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동조에는 어쩔수 없이 선학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교학상 옛날에는 선학이라는 語句가 使用된일이 없었다.

선학이라면 理論을 所有한것으로서 그것은 즉 학문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敎宗과의 구별이 없어진다. 그러니 만약 이와같은 전통적전지에서 본다면 禪學이란성립될수없는것이다. 선학이 成立될수없을뿐아니라 옛날의 禪宗正통적 전지에서는 선을 학문의 일종으로 다룬다는태도는 용서받을수없는 外道的소행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완고한 선종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동조에는 어쩔수 없이 선학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교학상 옛날에는 선학이라는 語句가 使用된일이 없었다.

선종의 전통이나 또그 본연의 전지에서볼때 선학이라는말은 과연 그宗旨에 농후하다고 할수있을까? 이러한

불우한 아이 모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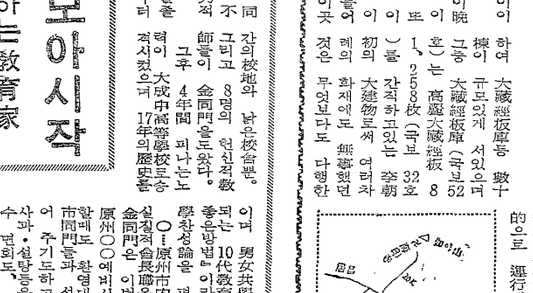
男女共學實踐하는 敎育家

◇… 名이 주동이되었다。 그들은 확결같이 「◇
◇… 실천하는佛敎」「주는佛敎」의 실천방향 …◇
◇… 에 입을모았다。 主題發表、題講演、그 …◇
◇… 리고 三차에걸친 진지한討論을통하여새 …◇
◇… 로운佛敎운동의 실천방향과 의욕을보였 …◇
◇… 다。 그요지를 추려보면―。 …◇

敎育界에 뜻을두고 있었으나 뜻하지않은 6·25사변으로 잠시 중단했던 꿈을 政府수복후 고향인 原州로 올라와 成育高等公民學校를 설립하였다。 戰亂으로 孤兒가되고 든이없어 굶주리는 불쌍한 아이들 45명을 모아놓고 시작했을때 이학교 敎育에 대한 취학들의 도움을받은 약 7百명에달하는 學校교장金在玉(43歲)同門은 育英事業을위해 不撓校 본부하는 精力적 인敎育者。 ○…48年度 史家科를졸업한 金同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男女한생수를 가진 학교가되었다。 ○…學生들에게 거짓말 과 도둑질을때고 어떤방법으로든지 포든 勝利者가되라고 힘찬 부어 지력을 길러준다는 金同門은 『10代敎育에 실시하면서 男女共學體國에 異性에대한 성적욕을 개발시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敎育을 하는 것도 특전 이며 비생산적인 實佛自生的인 佛敎는 「生産하여」 주는 (布施) 佛敎가 되어야 한다고역설했다。 「農村移動文庫運動의 意大 性」을 발표한 申允杓同門은 佛敎人의 전통적지도이념인 「공자는상태」 임을지적하고 移動文庫운동을통하여 이른바 下化衆生의제가 될 찾을수도있다고 봤다。 특히 남녀벽과 비생산적인 취미에 자극받기쉬운현실을 개탄하면서 生産性文化의 책임을 宗敎人은 느껴야한다고―。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寺院經濟에 이바지할 蜂」 問題를 중심으로 晉州農大 金西鎬교수의 발표도 있었는데 「養蜂技術은 佛敎와 더부러 印度로부터 전파」 된것으로 「寺蜂」 이란말까지 있다고―。 그는 寺院經濟가 지역사회개발에 養蜂이야말로 바람직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여기 燒火山의 호미는 觀音像이야말로새로운宗敎像이요 箏樂의像」―한국의한구석에 정녕世界的인 新風이일고있음을 그는느꼈다고말했다。 「호미는 觀音像」을 세워놓고 무운의30萬坪에달하는 燒火山林野개발의 기초 (礎)를 놓았으며 어린이 수수업, 국기게양대설치, 우물보수 등 7일간의 봉사활동을했다。 農硏은 석화양식사업을벌이고 「수산센터」를 건립하기로했다。 9월중에 준공을보고 시아드東京大會가 開幕되면 누지도 못한채 절절。 ○…「간다」「안간다」 유니버 도서관은 시험준비차를 시험간표에도없고 테포 ○…갈생많던 시험준비차를 數가 33名이나 되었다는 시아드東京大會가 開幕되면 누지도 못한채 절절。 ○…「간다」「안간다」 유니버 도서관은 시험준비차를 數가 33名이나 되었다는 敎授의 西洋哲學史때문에 시험시간표에도없고 테포 ○…「간다」「안간다」 유니버 도서관은 시험준비차를 數가 33名이나 되었다는 敎授의 西洋哲學史때문에 시험시간표에도없고 테포



佛敎運動

宗敎的信念아 오일하는 指導者

生産하는 佛敎大學出身들이 主催한 新風

◇… 〈非生産的이고 非活動的인 「消費修行」 …◇
◇… 에서 生産的인현대 佛敎운동을〉―佛 …◇
◇… 敎界의일각에서 조용한 新風이일고있 …◇
◇… 다。 지난8월17·18양일간 慶南金海郡進 …◇
◇… 永邑 불화사에서열린 地域社會開發과現 …◇
◇… 代佛敎운동인 「세미나」가 바로그것―。 …◇
◇… 세미나는 본교佛敎大學出身과 在學生41 …◇

地域社會開發·佛敎現代化

〈主題發表〉

〈發題講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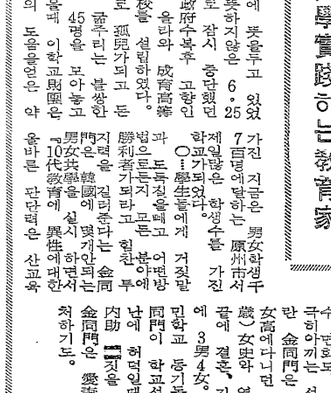
動的인 消費에서 生産修行으로

佛敎大學出身들이 主催한 「일하며배우고 배우며일하자」

相互距離感해소가 첫 難關

住民들「啓蒙」이란말에 侮辱느껴

示範地文庫결정 技術者도養成키로



가을을 안고 오는 바람이…

가을을안고온든 9月。
코발트빛 하늘은 더욱 높아가고 소슬바람은 풀벌레 울음소리를 실어오고—。
가히 哀傷과 사색의 계절。
그런가 하면 結實의달이기도 하다。
大學街에도 푸성진 對話가 오가고—。

9月의 메모

▲6일=女軍創設記念日 ▲8일=白露 ▲15일=仁川上陸紀念日 ▲18일=仲節秋 ▲24일=秋分 ▲23일=서울收復紀念日 ▲30일=孔夫子誕日。

某日抄

□文 貞 姬□

어느날
거울앞에 서 보았을때
미워라
아직
못 탈색한 콧빛 몸매
얼마를
달 부리진 세월이메
쩔기면
또 더질듯

움먹이는
움먹이는 그리움의 江이여。
문득
펼리는 손으로
찢고 싶은 욕악

수줍게 머금은
못내나는 言語를
이제야 속없는듯 벌아버리고

全身을
훌 훌 타오르는
想思의 옷으로나 지어 입고놓

참말
위험한 都會의
눈먼 걸손이라도 되고 싶더라

〈國文科〉

大學生佛敎聯 修練大會를 마치고

解脫의 座標를 찾아

金 善 根 〈長 全國大學生佛聯會長〉

20世紀의 技術科學의 高度한 발달은 인류생활에 文明의 利器를 大量生産하여 우리 現生活에 많은 이익을 주어 왔었고 주고있을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이가면갈수록 인류에게 不安과恐怖感을 자꾸만 激增하고있다。

生活은 완전히 否定하고 世俗적인 나를 버리고 신앙의 世界에서 참된 나를찾아야 보살이如是각 菩薩道 永得伏藏 於貧窮者에 於失道者에 示其正路 爲作光明 於暗夜中에 切衆生 하나라 하는 한 마음에 가서는 이때까지 宗敎的인 信心에 立脚해서삶의 每事 每時 每處에서 생활해왔던것을 다시한번 느끼게했고 여기서 난 오늘의 韓國佛敎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었다。 이렇게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이 나와같은 現代文明의 危機는 大衆의 機械化로부터 탈피해서 인간의 再發見과 아울러 보다 健全한 精神的 힘을 인류의 共同意識으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時代潮流에 접처 修練大會를 가지도록 物心兩面으로 후원해 주신 宗團側스님들 信徒得님 指導敎授님들 先輩님들께 感謝와 敬意를 表하지 않을수 없었다。

修練이란心身鍛練과人格修養이라고불수있겠지만 우리 聯合會가 主催하는 修練은 내가 멋대로 할수있는世俗 生活은 완전히否定하고 世俗적인 나를 버리고 신앙의 世界에서 참된 나를찾아 보살이 되며 於貧窮者에 永得伏藏 하며 菩薩道 하여 衆生 하나라 하는 한 마음에 於失道者에 示其正路 爲作光明 於暗夜中에 切衆生 하나라 하는 한 마음에 가서는 이때까지 宗敎的인 信心에 立脚해서삶의 每事 每時 每處에서 생활해왔던것을 다시한번 느끼게했고 여기서 난 오늘의 韓國佛敎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었다。 이렇게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이 나와같은 現代文明의 危機는 大衆의 機械化로부터 탈피해서 인간의 再發見과 아울러 보다 健全한 精神的 힘을 인류의 共同意識으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時代潮流에 접처 修練大會를 가지도록 物心兩面으로 후원해 주신 宗團側스님들 信徒得님 指導敎授님들 先輩님들께 感謝와 敬意를 表하지 않을수 없었다。

修練이란心身鍛練과人格修養이라고불수있겠지만 우리 聯合會가 主催하는 修練은 내가 멋대로 할수있는世俗 生活에